

● 시나가와 역사관 해설지 시나가와의 어업

에도만(灣)의 어업

에도 막부가 세워졌을 당시, 에도만의 어업은 오사카 주변에서 이주한 어부들이 기술을 들여오으로써 발전했습니다. 에도 막부는 이주한 어부들에게 특권을 부여하여 어업 발달을 앞당긴 것입니다. 이윽고 이주자와 토박이 어부들은 어우러져 갔고, 에도만 연안에 몇몇 어촌이 형성되었습니다. 시나가와 지역에서는 미나미시나가와 료시마치(시나가와우라) 및 오이무라



오하야시 료시마치(오이 오하야시우라)의 두 어촌이 형성되어, 에도성에 신선한 생선을 바치는 8 개 어촌의 일부로서 발전했습니다.

8 개 어촌을 살펴보면, 북쪽에서부터 가나스기·혼시바(지금의 도쿄도 미나토구), 시나가와·오하야시(지금의 도쿄도 시나가와구), 하네다(지금의 도쿄도 오타구), 나마무기·신슈쿠·가나가와(지금의 가나가와현)입니다. 이 중 가나스기·혼시바·시나가와가 통괄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들 어촌은 한 달에 세 번, 에도성에 신선한 생선을 바칠 의무가 있었고, 때로는 임의로 바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1792년부터는



▲요리키묘진자 신사
(출처: 『에도의 명소를 그린 지지(地誌)』)

생선 현상이 중지되고 현금을 바치게 되었다가 훗날 현금과 생선을 한 달에 한 번 바치게 되었습니다.

시나가와우라

시나가와우라는 미나미시나가와 역참 소속이면서 오시마 가문(나누시(마을의 행정 전반을 맡아보던 관직)를 맡아, 마을로서 행정 기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어촌은 메구로가와 강을 끼고 튀어나온 땅에 형성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어부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그물 건조장이 있었고, 수호 신사로서 요리키묘진자(현 요리키 신사)가 모셔져 있었습니다. 현재 요리키 신사 경내에는 신사의 유래 및 어촌으로서 번성한 시나가와우라의 역사를 새긴 석비가 있습니다.

시나가와우라의 고기잡이에는 게타부네 배가 사용되었습니다. 돛의 힘으로 배를 옆으로 가게 하고, 저인망을 5~9 개 끌어서 고기잡이를 했습니다. 시나가와우라의

게타부네 배 고기잡이는 다른 지역보다 활발했으나, 19 세기 중반, 포대 축조의 영향으로 어획량이 감소했습니다. 대신에 중하 등을 잡는 새우 저인망이 고안되었는데, 어구를 둘러싸고 다른 지역과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오이 오하야시우라

오이 오하야시우라는 오이무라 마을에 속해 있었습니다. 오하야시우라에는 시나가와우라와 달리 나누시가 없었지만, 시나가와우라와 마찬가지로 어부들을 통괄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1864 년 11 월에 작성된 자료에는 오이 오하야시우라가 성립된 유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1659 년에 시바카나스기 동쪽에 있는 토지가 돛토리번(지금의 돛토리현 돛토리시 주변)의 저택을 세울 토지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그곳에 살던 어부 6 가구가 오이무라 마을의 오하야시마치에 집 지을 땅을 받아 이주하고

그곳에서 어업을 계속하여, 오하야시
료시마치라 불리게 되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오이 오하야시우라는 사메즈(지금의 도쿄도
시나가와구 히가시오이) 부근에 있으며, 수호
신사는 오하야시 하치만샤(지금의 사메즈
하치만 신사)입니다.

시나가와에서 잡힌 어패류

1843 년의 자료에 따르면, 양태· 넙치·
중하· 뱀어· 쥐노래미· 오징어· 보리멸· 곰치·
도마· 송어· 학꽁치· 가자마· 노랑가오리· 삼치·
피조개· 대합 등이 잡힌 것으로 보입니다.

어업의 쇠퇴

시나가와에 있어 어업은 에도 시대부터
중요한 산업이었으나, 근대화가 진행되자
쇠퇴해 갔습니다. 매립 진행 등으로 바다의
환경이 바뀐 것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1962 년 12 월에 어업권을 포기함으로써 이
지역의 어업은 끝을 맺었습니다.

게타부네 배

